

형님 쉬어가니 아우 따라오는 선순환매

KOSPI 8,639pt(-1.8%), KOSDAQ 1,045pt(+2.3%)

해외 사항

신고가 경신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속 하락

- 휴일 미국 주식시장 2거래일간 신고가 경신 후 유가+금리+실적 이슈로 상승폭 반납(S&P 500 +0.1% → -0.7%). 엔비디아 AI PC 발표 이후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관심 확산. 다만 5월 2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 및 신고가 경신에 대한 부담감 속 중동 정세 불안 커지며 유가 반등. ADP 민간고용도 예상치 상회하며 금리 상방압력. 차익실현 명분 생기며 지수 하락

수급

외국인 역대급 순매도에 맞서는 개인 역대급 순매수. 원/달러 환율 1,535원 상회

- KRX 기준 KOSPI 현물 개인 +5조원, 외국인 -6.9조원, 기관 1.8조원 순매수. 대형주, 전기전자 중심 차익실현 매물 출회 지속되는 상황. 반면 금융투자, 개인 순매수는 지속. 외국인은 5월 6일 이후(KRX 기준) 누적 63.4조원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 1,535원 상회

시장

반도체, IT H/W 급등 및 쓸림 완화 → KOSDAQ 소부장 순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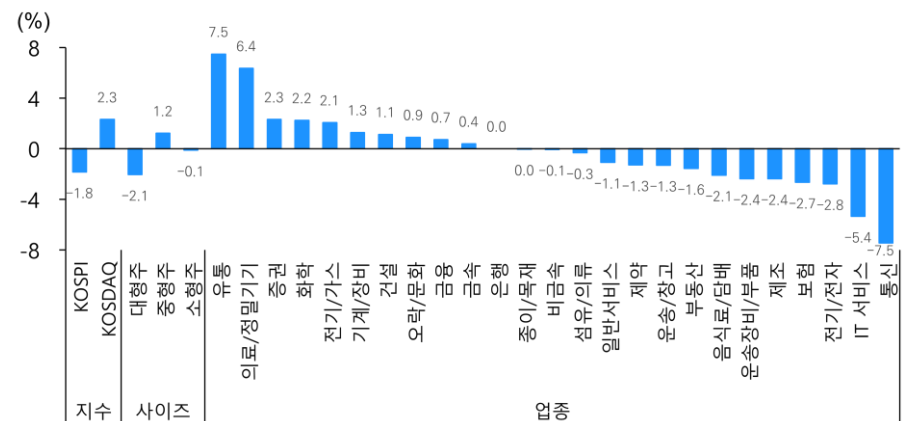
- 금일 KOSPI, KOSDAQ 각각 -1.8%, +2.3% 등락. 5월 27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KOSDAQ, 동기간 지속 상승한 KOSPI 대비 소외 지속됐으나 금일 KOSPI 대형주 쉬어가는 상황에서 순환매 유입. 로봇은 차익실현, 바이오텍은 반등 실패한 가운데 철저히 반도체 소부장 중심 상승하며 KOSDAQ 상승 견인(KOSDAQ 덕산하이메탈, 유진테크, 테스, 원익IPS, 팜텍, 마음AI, 라이콤, M83 상한가)
- ① 전주 급등했던 반도체, IT H/W 쉬어감과 순환매 : 삼성전자(-2.5%), SK하이닉스(-2.6%), 삼성전기(-5.4%), LG이노텍(-6.3%) 등 5월 KOSPI 신고가 견인했던 쓸림 4종목과 젠스항 방향 모멘텀에 숫자 안찍힘에도 급등했던 열지 그룹주(LG전자 -16.4%) 조정. 지수 2% 가량 하락했으나 KOSPI 상승 종목 447개 Vs. 하락 종목 446개. 유통, 증권, 화학, 금융 등 실적 대비 주가 높여있던 업종으로 순환매
- ② KOSDAQ 소부장 중심 반등: 최근 KOSPI 중심 대형주 장세 야기한 이벤트 중 하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소부장 매도 후 대형주 매수 수급 이동으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사이즈별 차별화 발생. 그 뜻은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어간다면 반도체 소부장으로 온기 확산된다는 것. 저가매수세 대폭 유입되며 소부장 업종 상한가 속출. 단 바이오텍(알테오젠 -2.9%, 보로노이 -3.7%)은 금일 KOSDAQ 반등 국면에서도 외면받으며 약세 유지. 연휴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신고가 경신. 이는 순환매도 실적이 확실한 섹터에서 돈다는 것 증명
- ③ 주식시장 머니무브, 소비로 확산될 가능성 : 유통업종 독보적 강세. 특히 백화점(신세계 +15.9%, 현대백화점 +14.8%). 월간:知 6월호에서 언급했듯 주식시장 호황의 과실을 손에 쥔 주체는 둘. 자본이득을 실현한 투자자와, KOSPI 신고가 랠리의 주역인 반도체 이익 증가를 배경으로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 이들의 소비는 초기에 고가 영역, 즉 백화점과 명품에 집중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18,091	2,068
외국인	-69,528	-426
개인	50,162	-1,634
거래대금	462,314	109,740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